통권 8호
MARCH 2026

1776 INSTITUTE Newsletter

1776연구소 정기소식지 | 발행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9 산림비전센터 1103호 홈페이지 www.1776.or.kr 이메일 1776institute@gmail.com

지난달 연구소 동정

제1회 링컨비 암송 콘테스트

지난 2월 13일(금),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여 제1회 '링컨비(Lincoln Bee) 암송 콘테스트'가 개최되었다. 링컨비는 자유의 역사를 쓴 주요 텍스트를 직접 암송하고 낭독함으로써, 그 사상적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내면화하고자 기획된 1776연구소의 암송 대회이다. 참가자들은 미국 독립선언문,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과 제2차 취임 연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과 한경직 목사의 글 가운데 한 편을 선택하여 무대에서 낭독하였다. 이번 콘테스트에는 총 21명이 참가하였으며, 초등학생부터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했다. 현장에는 일반 관람객 또한 다수 참석해 참가자들의 낭독을 경청하였다. 모든 순서를 마친 후 상장과 상금 수여가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의 낭독 영상은 연구소 채널을 통해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제1회 기독교 세계관 컨퍼런스

지난 20일(금)부터 21일(토)까지 양일간, 제1회 기독교 세계관 컨퍼런스가 1776연구소와 세상을 이기는 청년들(세이청) 공동 주최로 경기도 광주 소망수양관에서 개최되었다.' WHO WE ARE'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정치·신앙·역사·경제를 조망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약 120명의 참석자가 함께한 가운데, 참가자들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성찰하고 확립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대표 인사말

3월도 참 드라마틱합니다!

새해 벽두 베네수엘라 마두로 제거에 이어 이제 '악의 축' 이란의 하메이니까지 제거하며, 미국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롬13)"로서의 국가정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 공습한 것을 두고, 미국 MAGA 보수 진영 내 소위 고립주의자들과 개입주의자들 사이에 균열이 더욱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바보같은 전쟁'을 시작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들을 배신했다는 일부의 주장이, 찰리 커크의 암살 이후 더욱 불거진 반유대주의 음모론과 맞물려 상당히 분열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은 터커 칼슨과 스티브 배넌, 캔디스 오웬스 등 반유대주의 논객들에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의 하메이니 제거는 사실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 아니라 이란 이슬람 혁명정부가 47년 전 시작한 긴 전쟁을 끝내는 조치입니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정부 수립 (+주 이란 미대사관 인질극) 이후 줄곧 자국 내 인권 유린은 물론 미국과 서구 자유문명에 대한 테러와 대리전쟁을 지속해 왔고, 중동 내 유일한 자유민주국인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자타공인의 목적으로 핵무기도 개발했습니다.

또한 이번 이란 혁명군 참수작전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전쟁과는 전개가 다릅니다. 니얼 퍼거슨은 이번 트럼프의 군사적 개입이 정권과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와는 거리가 먼, 체제 내 성격과 구조를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레짐 얼터레이션(regime alteration)'이라고 개념화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베네수엘라나 이란 정권 공격의 표적은 다름아닌 중국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대 이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중간에 원산지 라벨을 바꿔치기 하면서 이란의 원유 80% 이상을 싼 값에 사들여 왔습니다. 2024년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붕괴로 막대한 자금 손실을 겪고 있는 이란에게 이런 중국은 거의 유일하게 남은 자금줄이었지요. 중국에게 이란은 대만 침공 등 유사시 미국의 해상 봉쇄를 우회하는 핵심 에너지 공급처이자 미국의 전략자산을 중동에 묶어놓는 전략적 요충지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은 단순히 동맹 이스라엘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이러한 중국의 '이란 카드'를 무효화 해 양안전쟁을 예방, 대비하는 차원입니다.

전세계 좌익들이 그동안 이란의 극악무도한 인권유린에는 침묵하다가 이번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두고 경악하며 반미 구령을 토해내는 모습은 이제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들은 애초부터 자유문명을 누리면서 자유문명을 갉아먹는 기생충 마인드(Gad Saad의 표현)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달 트럼프의 연두교서에서 자국민의 안전확보와 뚜렷한 경제성과에도 도무지 호응하지 않는 민주당 의원들을 가리키며 "these people are crazy"라고 절레절레 흔들었던 것 이상으로 달리 대응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108분으로 합동의회 최장 연설을 기록한 트럼프의 연설에서 그나마 거의 유일하게 민주당의 기립박수를 유도한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멜라니아 여사가 100세가 된 한국전 참전용사 로이스 윌리엄스 퇴역 대령에게 최고 훈장인 메달오브아너(Medal of Honor)를 수여했던 순간입니다. 전투기 조종사였던 윌리엄스 대령은 1952년 한반도 상공에서 30분만에 소련 전투기 4대를 격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소련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사실은 냉전 내내 기밀사항이었고, 소련이 붕괴하면서 기밀이 해제된 후에도 명예훈장은 공적 5년 이내에 수여해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한 지금에야 수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한국전쟁의 의미와 한미동맹의 깊이가 여전히 미국의 여러 정파와 정쟁을 초월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줍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 뉴스를 보니 '사법파괴 3대 악법(4심제, 법왜곡죄, 대법관증원)'이 결국 통과되어 '자유의 수호자(Guardian of Liberty)'로 불리는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붕괴했네요. 'K-자유문명' 무너지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길 기도하면서, 1776연구소는 '내일 세상이 무너져도 오늘 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계속 오늘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3월에는 3기 견미단원 선발이 완료되어 본격적인 견미단 준비가 시작되었고, <국부론> 출간 250주년 기념 세미나와 우남생파, 서울 역사투어 등을 개최합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믿음으로 함께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조평세 올림

March, in the History of Liberty

3월 1일 (1919) 이날 오후 2시, 33명의 민족 대표가 서울 태화관에 모여 최남선이 초안을 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같은 시각 탑골공원에서는 학생과 시민들이 모여 만세를 외치면서 3.1운동이 발발. 약 4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1,500회 이상의 집회가 열리고, 당시 인구의 상당수인 약 2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 최남선은 훗날 '자유, 평등, 정의 등의 개념들이 모두 기독교에서 나왔음으로 나에게서 기독교를 뺀다면 내가 쓴 독립선언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

3월 4일 (1681) 영국 왕 찰스 2세가 윌리엄 펜의 아버지에게 빌린 거액의 빚을 갚기 위해 현재 펜실베이니아 땅을 하사. 퀘이커교도였던 윌리엄 펜은 이 땅에서 진정한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고자 노력. 윌리엄 펜은 "고통(pain) 없이는 종려나무(palms, 승리)도 없고, 가시(thorns) 없이는 보좌(throne)도 없으며, 고난(gall) 없이는 영광(glory)도 없고, 십자가(cross) 없이는 면류관(crown)도 없다."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통치받지 않는다면, 폭군에 의해 통치받을 것이다."라는 명언을 남김.

3월 5일 (1770) 보스턴에서 영국군이 위협적인 군중에 발포하면서 '보스턴 학살'이 발생, 5명이 죽고 6명이 부상당함. 영국군 장교 프레스턴 대위와 8명의 부하가 법정에 섰고, 훗날 미국 2대 대통령이 되는 존 애덤스가 영국군을 변호함. 프래스턴 대위와 6명의 영국군은 무죄로 풀려나고, 2명이 유죄판결을 받음.

3월 5일 (1946) 미국을 방문한 윈스턴 처칠이 미주리주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유럽에 드려진 서부 자유국과 동부 소련 치하의 나라들을 구분하면서 "철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함.

3월 6일 (1857) 미국 역사상 가장 논란이 되었던 연방대법원의 드레드 스콧 대 샌드포드 사건 판결이 내려짐. 이 판결로 노예 제도를 둘러싼 갈등을 심화시켜 남북전쟁의 도화선을 당김. 아프리카계 흑인에게 시민권을 부정하고 노예를 농장주의 '재산'으로 여긴 이 판결은 남북전쟁 후 채택된 수정헌법 13조(1865년)와 수정헌법 14조(1868년)에 의해 무효화됨.

3월 9일 (1776) 애덤 스미스가 영국에서 <국부론> 초판을 간행.

3월 12일 (1947) 미국이 공산 독재국가로부터 위협받는 나라들을 군사, 경제, 외교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트루먼 독트린'이 선포됨.

3월 12일 (1993)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영변 핵시설 사찰을 거부하며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를 선언, 북핵위기 시작.

3월 14일 (1951) 중공군의 개입으로 1951년 1월 4일 적군에 내주었던 서울을 국군 제1사단과 미군 등이 리퍼 작전(Operation Ripper)을 통해 재탈환.

3월 17일 성 패트릭(Saint Patrick, 385?~461?)의 날. 아일랜드에서 샴록(세 입 클로버)을 사용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하고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운 5세기 선교사 성 패트릭을 기념. 3월 17일은 그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날.

3월 20일 (1852) 해리엇 비처 스토가 소설 <톰 아저씨의 오두막>을 출간. 이 책을 통해 미국 흑인 노예제의 비참한 실상을 폭로하여 남북전쟁과 노예해방을 위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킴.

3월 23일 (1775) 리치먼드에서 열린 버지니아 의회에서 패트릭 헨리가 독립혁명을 촉구하며 "자유가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라는 유명한 연설을 남김.

3월 25일 (1807) 1791년부터 거의 매년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발의한 윌리엄 윌버포스의 노력 끝에 드디어 영국 의회가 노예무역을 폐지함. 노예제 자체의 폐지는 1833년에 이룸.

3월 26일 (1885) 우남 이승만 탄생

3월 26일 (2010) 천안함 피격

3월 30일 (1981)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에 취임한 지 두 달 만에 워싱턴 D.C.에서 암살미수범의 총격으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폐가 뚫리는 부상을 입음.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의료진에게 "당신들 모두 공화당원이길 바랍니다"라는 농담을 던짐.

주목할만한 뉴스 / 칼럼

[월드뷰] 3월호 - 교육전쟁

월드뷰 3월호는 새학기를 맞아 '교육' 특집으로 꾸몄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워낙 중요한 문제라 3월호 전체를 공유해드립니다. 특히 월드뷰 대표주간 이상원 교수님의 글과 자유시민교육 연구원들의 '기독교와 교육' 섹션 5개 칼럼은 꼭 필독을 권합니다.

[노태정 팟캐스트] 이승만학당 이영훈 교수

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마약과 같은 잘못된 역사교육을 차라리 멈춰라"라고 말씀하신 이영훈 교수님의 인터뷰 영상을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한국의 민족주의 역사관은 우리의 선진화를 가로막고 오히려 문명을 역행하고 있다고 이영훈 교수는 말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교과서의 근현대사 서술은 거짓말이 없는 페이지가 한 쪽도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3월 연구소 동정

<국부론> 250주년 기념 청년 세미나

3월 9일(월), <국부론> 초판 출간 250주년을 맞아 애덤 스미스의 도덕철학과 경제철학을 함께 살펴보는 청년 세미나를 진행한다. 본 세미나는 애덤 스미스의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한 인간 이해를 중심으로, 그의 도덕철학이 자유시장경제 사상으로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통합적으로 조명한다. 세미나는 1776연구소 현장에서 선착순 15명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 줌으로도 동시 송출된다.

우남생파 및 서울역사투어

3월 21일(토), 우남 이승만 대통령 탄생 151주년을 기념하여 「우남생파 및 서울역사투어」가 진행된다. 본 행사는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우남 이승만 대통령 묘소에 헌화하는 일정으로 시작되며 오후에는 양화진과 정동 일대에서 한국 근현대사 현장 탐방을 진행한다. 저녁에는 '우남생파' 본행사가 진행된다. 우남생파는 1776연구소가 지난해 처음 시작한 기념 행사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남의 사상과 유산을 기리고 축하하는 한편, 관련 단체 및 모임들을 소개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또한 차주에 예정된 우남 관련 모임들을 안내하는 자리로도 마련된다.







2월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 O 은
고 O 영
권 O 운
권 O 현
김 O 래
김 O 석
김 O 실
김 O 애
김 O 연
김 O 연
김 O 은
김 O 종
김 O 주
김 O 준
김 O 진
김 O 희
노 O 스 더
대 O 조
도 O 현
문 O 아
문 O 아
민 O 나
민 O 환
박 O 기
박 O 기
박 O 민
박 O 서
박 O 원
박 O 은
박 O 인
박 O 정
박 O 주
박 O 혁
배 O 호
베 드 O 센 터
변 O 연
서 O 민
손 O 광
손 O 은
양 O 진
양 O 호
원 O 슬
이 O 건
이 O 란
이 O 빈
이 O 수
이 O 영
이 O 영
이 O 운
이 O 은
이 O 창
이 O 현
장 O
장 O 아
장 O 재
전 O 미
정 O 교
정 O 민
정 O 슬
정 O 아
정 O 용
정 O 원
정 O 재
정 O 한
조 O 희
주 O 광
주 O 규
만 O 학 교
차 O 욱
추 O 령
한 O 훈
허 O 은

후원 안내

3만원 이상 정기 후원 시
1776연구소 굿즈를 보내드립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004-781904
(1776연구소)